

에밀놀데의 종교화에 구현된 기독교 사상에 관한 연구

이 일 청

서해대학 피부미용과 교수

A Research on Christian religion that is embodied to Emil Nolde's holy picture

Lee, Il-Cheong

Dept. of Skin & Beauty, Sohae College

(2005. 2. 11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find Christian religion and Germany expressionism which were background of Nolde's art and analyze formation and special quality, expression mode of holy picture. If synthesize contents of these analysis, we could know that faith is giving religious inspiration continuously during his life to Protestant experience through the Bible. 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 by time but we could foretell that he accomplished modern holy picture of new sensitivity by doing individual expression with equal Bible subject traditionally in 20th century that change unlike existent holy picture with these motive power. That is, with new trend which religious inspiration as imagination which spring up in experience that is not experience of artificial Christian religion is then expressionism various that historically, he accomplished unique holy picture to related each other with the historic event.

Key words : Emil Nolde(에밀놀데), Holy picture(종교화), Religious inspiration(종교적 영감)

I. 서 론

기독교가 절대적인 삶의 진리이자 모든 철학과 예술의 주제가 되었던 중세부터 종교화는 서양 미술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사상과 18세기의 계몽주의, 19세기의 다윈과 니체의 학설의 영향으로 서양 미술에서 기독교적 주제는 그 중심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서양미술에서 종교화의 영역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낭만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인간의 정신성을 중요시했던 주관적인 경향의 미술사조에서 종교적 모티프의 맥락은 계속 이어졌다¹⁾. 특히, 1905

년에 창설된 브뤼케 그룹을 중심으로 전통의 아카데미적 질서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신세계 이념을 담고 있는 혁신적 현대 미술을 지향하는 표현주의 회화에 이르러서는²⁾, 종교적 주제에 적합한 형식과 감성을 수반함으로써 20세기의 종교화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표현주의 격류 속에서 혁신적 성향을 띠고 있는 화가들 중의 한 사람이 에밀 놀데(Emil Nolde)였으며, 그 시대에 독창적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화가로 주목받고 있다. 놀데(Nolde)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도 하에서 작품을 창조하였고, 체질적으로 어느 유포에도 속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주변세계의 모순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고립된 존재의식을 지닌 북구 예술가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놀데 개인의

*Corresponding author: Lee, Il-Cheong
E-mail: eic2170@sohae.ac.kr

독특한 내면세계와 표현주의적 양식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독일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밀 놀데(Emil Nolde, 1867-1956)의 예술세계의 배경이 된 기독교 사상과 독일 표현주의 등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고향에서의 성장과정과 일생을 통해 지속된 작품세계 가운데서 종교화의 형성 및 특성, 표현방식 등을 연구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즉, 기독교 사상과 독일의 표현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및 경향을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놀데의 성장기에서 말년에 이르기까지의 화업과 작품세계, 작가적 기질을 살펴 보면서 그의 종교화의 특성과 표현방식 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놀데의 종교화의 사회적 형성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의 독일 기독교 사상의 일반적인 특징과 여기에 영향을 받은 놀데의 경험적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그 시기의 화조로 대표되는 독일 표현주의 특징과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고찰해본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놀데의 일생 작품 세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이 가운데 종교화와 관련된 주요 작품을 기독교 사상과 표현주의와 관련하여 그 특징 및 표현방식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놀데(Nolde)의 종교화에 표현된 기독교 사상

1. 독일 기독교 사상 : 19세기에서 20세기 초

19세기 기독교 사상은 저항과 긍정으로써의 특징을 가진다. 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인간 사회 전반(여기에는 역사, 문화, 사회 등 모든 면이 포함)에 대한 비판적 해석의 저항을 의미하며, 후자는 나라를 포함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긍정과 인류 역사나 문화 발전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시기에 전환기의 독일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변화와 혼동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인간과 신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독일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제국의 힘과 통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지녔으나, 그 제국의 문화적 침체에 대해서는 심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옛 독일의 정신적 문화유산이 자유주의, 세속주의, 산업주의의 근대문명에 의해 와해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물질주의에 의한 독일정신의 몰락 및 관념론의 패배에 대한 개탄이 공통적이었으며, 관념론적 교육전통 속에서 성장해 온 중산계층은 산업화가 초래한 문화적 격변을 몰락으로 판단하였고 그 몰락은 도덕적 부패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자연과 옛 문화에 대해 감상적 향수를 지녔던 독일인들에게 괴물처럼 거대하고 추한 도시들의 급격한 성장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⁵⁾.

이러한 격변과 사고의 혼동 속에서 산업화는 지금까지 사회적 양상을 철저히 와해시킴으로써, 기독교에 대해서도 재래적인 교회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산업적 발전 그 자체는 일련의 과학적 발전에 근거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였고 새로운 기술이 보장해주는 풍부한 신기원은 인간의 삶의 목표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였다⁶⁾.

과학의 발달, 실증철학, 역사에 대한 지식은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변화가 가져온 사회변혁과 함께 교회의 제도와 기관, 그리고 기독교인의 믿음에 큰 도전이 던진 것이다. 교회는 그 본연의 전통적 숭엄함을 잃어갔으며, 일반 신자들의 종교적 정열을 감소시켰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곳으로서 전통과 도덕의 중심부라는 기존의 시각은 크게 약화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교리는 윤리적 지표로 전락하였고 이 현상은 19세기 유럽이나 미국 그 어느 지역보다 프로테스탄트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세기 독일 개신교 역사는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전통적 신앙을 잃어버린 것과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것을 되찾으려는 욕망이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현대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이룩한 그 사회적, 윤리적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신앙이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⁷⁾.

카톨릭 교회의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점에서 기독교 사상가들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사상을 형성하였

다. 이와 같은 조화사상의 형성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끼는 것이 카톨릭 교회와 근본주의 자들이며, 과학의 성과의 조화적인 사상의 형성을 이루는 경향 전체를 가리켜 자유주의라 일컬었다⁸⁾. 자연 과학과 다른 학문들이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19세기 프로테스탄티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쉴라이에르마허(F.D.E. Schleiernmacher, 1768-1834)와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이다.

쉴라이에르마허(F.D.E. Schleiernmacher, 1768-1834)는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로서 그의 기독교적 접근 방법은 체험주의였다. 이성주의 속에서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들을 계속 주장하기에 한계를 느낀 그는 낭만주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종교론』(1799)을 통해 종교의 본질은 사고도 실행도 아닌 직관과 감정임을 주장하였고, 도덕적이거나 이지적인 것을 종교의 특색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종교를 “절대의존의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느낌이 드는 존재로서 신자가 절대 의존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종교의 본질로 여겼고, 죄는 이러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부족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였던 사람으로 제시하였다⁹⁾.

그리고, 19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독일의 기독교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는 알브레이트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이다. 그는 쉴라이에르마허에 의해 시작된 자유주의 전통을 대변하였으나, 수많은 영역에서 쉴라이에르마허의 사상을 수정하였다. 리츨은 쉴라이에르마허가 주장하였던 절대 의존의 감정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종교에서의 신비주의적인 분위기를 배척하였다. 그는 기독교는 합리적 지식이나 주관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서, 실천적, 도덕적, 생활 속에서 살아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그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연구를 통해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예수의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사실적 지식에 기초하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리츨의 사상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의 사상을 따르는 리츨파 학자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발히 활동하였다¹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9세기-20세기 초의 독일의 기독교는 기존의 기독교 사상과 달리, 거대한

지성의 도전을 받으며 새로운 사고 구조 속에서 전통적 신앙을 재해석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이는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기에 일어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인간의 모든 측면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변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독일 기독교 사상의 경험적 신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기독교 사상은 거대한 지성의 도전을 받으며 새로운 사고 구조 속에서 전통적 신앙을 재해석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기독교는 지역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 강한 남부 보다는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 이후 그 전통을 지키며 발전하였다. 놀테가 성장하며 작품 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낸 그의 고향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은 독일과 덴마크의 경계선을 이루며 북해에 접해 있고,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계속되고 있는 전형적인 북부 독일 지역이다. 집안에서의 삶은 북부 해변가의 종교의 자유에 긍지를 갖은 청교도적인 자유농부의 단순하고 성경에 기초한 정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놀테가 종교적 테마들을 그의 작품의 주요 주제로 채택한 것은 1909년의 심한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개인적 체험이 직접적 동기가 되었으나,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의 전통이 깊은 지역에서 성장하며 그에게 내재된 경험적 신앙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다.

놀테가 1909년 이후 종교화들을 제작하며 보여준 그의 기독교적 사고는 이 당시의 종교관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차가운 교리에 대한 거부, 지식과 과학에 대한 불신, 그리고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과 신앙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놀테의 고향인 북부 독일 농부들의 종교관인 것이다. 이러한 성장기의 신앙적 분위기 속에 놀테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였고, 이 시기에 성경을 읽으며 상상했던 것이 그가 성인이 되어 종교화를 제작할 때의 확실한 영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놀테는 자서전을 통해 어린 시절 상상에 근거한 기억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긴 겨울을 저녁 내내 성경을 읽으며 보냈던 어린 소년의 생각은 다시 일깨움을 받았다. 그것들은 풍부한 동양적 환상의 그림들이었다. 이제 성인으로 화가로서 꿈과 같은 영감 속에서 그것들을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상상 속에 떠오르고 있었다”¹¹⁾.

이처럼 놀데는 종교적 영감을 순수한 어린 시절의 상상에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의 종교화들에서 성경적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환상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었다. 즉, 놀데의 종교화는 개인적인 영적 갈망의 경험으로서, 그 영적 갈망을 강한 기념비적 형태로 변형시킴으로써 원시적·원형적 감정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놀데의 조형 의식의 산물로서 평가할 수 있다. 놀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 가깝게 이르게 했으며, 또한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그의 일생에 계속되었음을 그의 친구인 페르(Friedrich Fehr)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내가 8살이나 10살이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압축한 약속을 하였다. 그것은 어린이가 되면 기도 책을 위한 찬송가를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많은 그림을 그렸고, 종교화는 30개가 넘을 것이다. 그것으로 대산해도 과연 권할 줄을까?” (Wolf-Dieter Dube, 1972: 76).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놀데의 유년기의 신앙적 경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신앙과 예술의 강한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09년에 중병에 회복되는 것이 종교화 제작에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나, 보다 근본적 동기는 북부 독일의 기독교적 배경과 가족의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성장 과정(종교적 체험, 성경을 통한 환상 등)이며, 또한 예술로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놀데의 성장기의 종교적 경험은 그로 하여금 종교적 주제로 접근하는데 강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 놀데의 종교적 사고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 그의 종교화에 자유롭고 환상적 표현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다.

III. 독일 표현주의와 니체 사상

1. 독일의 표현주의

과거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형식에 중요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화가들의 관심은 대상의 외적 자극에서 오는 느낌을 그들의 내적 정신세계에 의해서 다시 형상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것들은 독립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기존의 질서나 가치에 대한 대립이나 반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출발은 비록 자발적이고 주

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도 객관적인 역사의 필연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지배적이었던 기존의 질서나 가치를 지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적인 개혁으로 소리 없는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였다¹²⁾. 표현주의는 시대적 상황과 정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예술이다. 1890년부터 시작된 19세기의 실증주의와 물질주의의 현실해석을 반대한 운동으로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생의 감정을 강력하게 표출하였고, 예술의 모사원칙을 무시한 주관적 표현, 강렬한 색채의 추상적 사용, 굵은 윤곽선의 강조, 내적 이미지의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정치·사회적인 불안감과 밀어닥치는 기계문명의 물결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정신적 존재가 위협받는다 생각하였다. 모든 권위와 전통이 부정되었고 자연주의의 비인간적인 객관성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 고전주의 및 낭만주의의 시대의 전통까지 반발한 것이다. 그것은 인상주의가 외계로부터 받은 인상(der Eindruck)을 소극적으로 재현하는데 비해 표현주의는 자신의 내부의 부르짖음을 표출(der Ausdruck)하는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명칭 상으로도 인상주의가 Impression인데 비해 표현주의가 Expression으로서 대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표현주의는 표현함에 있어서 인간과 세계를 보며 어떠한 형식으로 그렸는가의 차이로 20세기 표현주의적인 미술은 구별될 수 있다. 독일 표현주의의 역사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연에서 정신으로 외부에서 인간 내면으로 옮겨가 인간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크게 “다리파”와 “청기사파”로 불리는 두 개의 표현주의 그룹이 결성되었는데, “다리파”는 중부 독일과 북부 독일에서 일어난 반면 “청기사파”는 뮌헨을 중심으로 남부 독일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놀데가 속한 “다리파”는 고통스러운 세계에 대한 아픔으로 인한 절규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즉, 결코 자아와 타협하지 않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극단적으로 과장된 황홀할 색채감으로 종교적인 환상을 꾸밈없이 표출시키면서, 창조적인 감성으로 이루어진 자생적인 흐름으로 표현주의의 고유한 형태원칙을 창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리”에 가담한 화가들은 “청기사”에 비하여 양식적이거나 내용적인 측면이 매우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표현주의 운동으로 분류된다¹³⁾.

실제로 놀데가 공식적으로 “다리파”의 일원이었던 기간은 몇 달밖에 되지 않지만 그의 동료들과 마

찬가지로 원시 종족의 미술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그림의 전통적인 기법을 버리고 원시적인 기법을 발전시켰다. 터질 듯 한 색채들과, 매우 두터운 터치로 그려진 부조화스러운 대조가 그림의 특징이며, 이를 통해 놀데는 종교화의 부활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2.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영향

니체(Nietzsche)의 사상은 합리주의적, 실증주의적 전통을 거부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독일뿐만 아니라 20세기 유럽 전역이 예술과 철학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니체의 “디오니소스(Dionysos)적” 개념과 무제한적인 본능에 대한 강조는 표현주의자들을 압도하였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반영되었다.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개념은 그의 처녀 작품인 <비극의 탄생>(1872)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말년의 저서인 <힘에의 의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반복되었는데, 특히 니체 자신이 주인공을 “디오니소스적 괴물”이라고 부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두드러진다¹⁴⁾. 디오니소스적 경험에 뿌리를 둔 예수로가 삶의 방식에 대한 니체의 주장은 문명의 발달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실증을 느낀 동시대 사람들에게 의해 공감되었다.

놀데는 1906년 칼슈미트 로틀루프(Karl Schmidt-Rottluff)에 의해 니체의 사상을 처음 들었고 디오니소스적 충동을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것과 동일시하였다. 다리와 그룹 탈퇴 후에 확고한 표현주의적 성향을 보인 놀데는 자신의 작업태도에서 모든 지적인 사고와 의지를 배제하고 순수한 본능에 따라서만 작품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작업에는 의지, 숙고, 생각 등이 배제되고 있음을 자주 언급하였다.

“화가들은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것이란 마치 호흡을 하거나 걸음을 걷는 것처럼 본능적인 것이 시키는대로 그리 때 나타나는 것이다”(정미희, 1990).

이와 같이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인 힘이 놀데 작업태도의 근본 요소가 되었으며, 엄격한 교리에 매이기를 거부한 놀데는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주관적인 창조적 표현들에 의해 종교화들을 제작함으로써 그의 작품들을 전통적 종교화와 구분 지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놀데의 종교화에 있어서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영향을 논하면서 디오니소스적 개념에 포함된 반기독교적 요소를 간과 할 수 없다. 니체는 기독교

의 절대적 도덕은 삶을 부정하고 경멸하여 마침내 몰락시키는 것으로 본능의 파괴자이며, 퇴폐와 비방의 원리로 여겼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적이 세계관을 삶을 보존하고 본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기독교적인 것을 극복하고 압도하려는 것으로 주장된 것이다. 그러나 놀데는 경험적인 기독교적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그 신앙에 근거하여 종교화들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놀데의 종교화에 나타나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개념의 영향은 본능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을 중요시한 그의 작업태도에서 한계 지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IV. 놀데(Nolde)의 작품에 투영된 종교화의 특성분석

본 고에서는 놀데의 작품에 투영된 종교화적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편의상 종교화가 집중적으로 제작된 1909-1912년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요 작품을 기독교 사상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초기 종교화, 1909-1912년 종교화, 1915년 이후 종교화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초기 종교화의 특성 분석

놀데는 1909년 이후에야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표현에 대한 갈망 속에 종교화를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내면적인 종교적 욕구의 표출로서 표현주의적 특성도 더욱 강조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종교화의 경우는 이후에 그려진 종교화에 비해 크기도 작고 큰 내면적 감동을 주지는 못하였으나 소수의 종교화를 제작하였다.

놀데가 처음으로 성경 테마를 다루게 되는 것은 1900년 파리 체류 기간에 그린 네 점의 종교화에서 드러난다. 그의 대표적 초기 작품인 <팔려가는 요셉>(1900)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편에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두 번째 작품 <아브라함과 이삭>(1900)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창세기 22: 1-14 참조). 이 작품에서 결국 종교인으로서 자세를 주제로

한 듯하나 역시 아버지와 아들간의 내면적 정감이 흐르는 것을 감안할 때 놀데의 인간적인 면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놀데는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병 고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자를 치료하는 그리스도>(1900)에서 표현하였다. 병자의 무리와 구경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은 채 병자들을 향하는 손을 들고 있는 뒷모습을 그렸다. 배경의 밝은 부분이 이 그림을 실내로 나타내는 듯 하며, 열린 문 밖으로 들어선 병자들의 무리를 붓 터치로 나타내고 있다. 앞의 두 작품에 비해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뒤에 서 있는 인물들을 하나의 큰 단면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은 1912년과 1915년 이후의 작품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후기 종교화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또 하나의 종교화는 1904년 놀데가 교회에서 재단화를 그려 달라는 요청에 의해 제작한 <엠마오에서의 그리스도> (1904)이다. 이 작품은 놀데가 처음 종교화를 제작한 1900년 이후부터 다시 종교적 소재를 택하는 1909년 사이에 그려진 유일한 종교화로써 1990년의 종교화들에서 보여진 표현의 미숙함을 벗어나 매우 강건하고 엄숙한 정신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저녁을 함께 지내며 떡을 떼어 축사하자 그 두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그제서야 알아 보나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누가복음 24: 13-35 참조). 인상주의 경향과 자신의 독특한 색채의 표현을 확립해 가던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지만 종교화의 목적으로 제작된 영향으로 전체 화면은 몹시 경건하며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초기이 종교화들은 놀데의 그림 표현 방법에 있어서 아직은 서툴다고는 하나 그 이후로 놀데의 종교화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1909년-1912년의 종교화의 특성 분석

1909년-1912년은 놀데의 작품 생애에 있어서 발전과 성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미술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아울러 이 기간은 그가 가장 종교적 희망에 심취한 가운데 종교화를 주로 그려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기의 종교화

에서 놀데의 작품에서 인상주의적 경향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그의 내면에서 싹트고 있는 강렬한 표현 욕구가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9년 여름 그는 식중독으로 심한 고생을 겪으면서 종교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병이 회복된 뒤에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구원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내적 진실을 승화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화면에 인물들로 가득차 있는 구도는 전통의 것과 유사하지만, 색채 표현의 자유로움과 상세한 인물표현 등은 전통적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신약에서 감응을 얻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와 아이들>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알센(Alsen)의 어린이를 모델로 해서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축복 받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어린 시절 놀데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한 가운데 제자들과 어린이들이 밝은 표정 등을 색채를 통해서 대비시켜 강조하고 있다(마가복음 10: 13-16). 또한 놀데의 자유로운 내적 감성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춤추는 아이들>에서 희미한 불빛과 안개, 그리고 공간 속에 투영된 정경 등이 인상주의적 요소들을 보여준 듯하나, <황금 송아지 들레의 춤>에서는 활기차고 풍부한 색채 공간의 넓고 단순한 평면을 나타내며 또한 완벽한 보색 사용은 명백하게 인상주의를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주황색과 빨간색에 스며든 따뜻한 노란색의 흐름은 그림의 오른쪽 상부에서 대각선으로 지나고 있고, 이와 대비되는 차가운 푸른색과 보라색의 움직임이 왼쪽 상부로부터 대각선으로 흐르며 이 두 흐름의 교차가 중앙의 무희들에 집중된다. 춤을 추는 무희들의 몸과 머리는 황금빛과 붉은색, 진초록과 보라색의 비자연적 색채로 그려져 있으며 하늘과 그림자에 사용된 푸른색과 황금빛의 보색 조합은 화면 전체에 반복되고 있다. 즉, 놀데의 색채 사용의 특성인 차가움과 따뜻함, 밝음과 어두움, 부드러움과 강함의 대비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12년 <촛불과 무희>로 이어지는 춤을 테마로 한 작품들은 놀데의 춤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낸다. 과묵한 북유럽인인 놀데에게 춤은 제스처에서 느낌의 직접적 표현을 보게 되는 깊은 개인적 경험이었던 것이다. 놀데는 춤을 출 때의 육체의 본능적 표현에 가장 심취되었고, 당대의 유명한 무희들인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과 오스트리아의 사하렛(Saharet), 파리의 휠레르 그리고 이후엔 위그만에게서 깊은 인

상을 받았다. 모든 지적인 사고와 의미를 배제하고 순수한 본능에 따라서만 작품을 하고자 했던 놀데는 춤을 통해 원시인 상태의 인간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 행위인 춤을 표현함으로써 그 작업을 이룰 수 있었다. 관능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논의될 있는 작품은 1912년에 그려진 <이집트 마리아> 3부작이다. 알렉산드리아 매춘부의 전설을 받아 그려진 이 그림은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3폭으로 나누어 그려졌다. 이 전설은 매춘부인 이집트의 마리아가 17년 후 예루살렘에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보게 됨으로 순결한 삶으로 변화하여 요단강 건너 사막에서 은둔하며 살다가 죽을 때에는 성 조지무스(St. Zosimus)와 그의 사자에 의해 묻혀졌다는 이야기이다.

놀데는 이 이야기를 표제로 <황금 송아지 둘레의 춤>과 동일하게 그의 강렬한 감정을 힘찬 제스처와 리듬, 그리고 타오르는 듯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현하였다. 왼쪽은 마리아의 죄가 가득한 삶을 그린 것으로 마리아가 세 명의 거칠게 생긴 남성들과 벌거벗은 몸으로 관능적인 포즈와 표정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다. 빨간색과 노란색의 강렬한 색채사용과 제스처는 관능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은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마치 동화책에서 볼 수 있는 듯한 사자와 성 조지무스 앞에서의 죽음을 그렸다. 매춘부의 회심이 이 작품의 주제나 대단한 관능적 표현은 당시 카톨릭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도 놀데의 그림을 신성모독으로 보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놀데 종교화에 개성을 부여하고 전통적 종교화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었다.

1909년에서 1912년에 이르는 기간에 놀데는 그가 일생을 통해 그린 종교화의 절반에 달하는 많은 수의 종교화를 집중적으로 그릴만큼 종교적 주제를 통한 영적인 표현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의 종교화들은 초기의 작품이나 1915년 이후로 지속된 작품들보다 놀데가 받은 직접적인 종교적 감동이 가장 많이 드러나며, 또한 내면세계의 표현을 모티브로 더욱 확고해진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 1915년 이후의 종교화의 특성 분석

놀데는 1909년 이후부터 1912년까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종교화를 제작한 이후, 다시

1915년에 새롭게 종교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1915년까지의 극동 여행, 원시미술 연구와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이라는 시대적 여건 속에서 작품의 색채와 형태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15년에서 1951년, 즉, 놀데가 사망하기 5년 전까지 제작된 작품 수는 총 24편이다. 그러나 사실상 1915년에서 1933년까지 19년 동안 23편을 제작하였고, 1934년부터 1950년까지의 17년 동안은 종교화 제작을 하지 않았으며 1951년에는 마지막 작품 한 점을 제작하였다.

종교화를 그리지 않은 1934년에서 1950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로 이 시기에 놀데는 나치 정권에 의해 1937년에는 좋지 않은 미술가로 낙인찍혔고, 1941년에는 작업 중지령을 받았다. 자신의 고향 북구 슬레스비히에서 1920년에 창설된 나치당 선언의 멤버로 가담하는 등 정치적 참여도 보였던 놀데이나 그의 표현주의 작품들은 나치의 탄압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1915년 이후의 놀데의 종교화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그려진 것들로서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에 많은 양이 제작되었다.

1912년 이후 종교화가 제작되지 않은 기간인 1913년에서 1914년까지 놀데는 극동지방 여행은 한국으로 계속되었고, 서울에서 왕들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 때 무덤 주변의 돌로 만든 동물들, 병사, 승려 상에서 느껴진 신비한 감정들은 그의 신비적 성향을 크게 자극하였다. 1913년의 이 작품이 <한국인>이다. 이 여행은 놀데에게 “제국식민지 공무원”의 뉴기니아 발송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원시미술에 대한 큰 관심에서 자주 민속 박물관을 찾아 연구하곤 했던 놀데에게 뉴기니아의 체험은 중요한 경험이 되었으며 이후 놀데의 작품에 이국적이며 원시적인 표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능을 중시하고 표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놀데의 특성은 스스로를 원시미술에 속박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원시미술에 대한 그 열정은 작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였다. 특히 극동여행을 마친 1915년에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88점이라는 가장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풍경화, 초상화, 정물화를 모두 포함한 숫자이며, 종교화는 7점을 제작하였다.

1915년 이후 다시 시작된 종교화들은 양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졌는데 이는 놀데가 일생을 통해 성경적 주제들로부터 작품에 대

한 감응을 꾸준히 받았음을 의미한다. 놀데의 종교화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전쟁의 영향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의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의 전쟁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은 1915년의 그림 <매장>을 들 수 있다. 놀데는 총 7점의 종교화 중 <매장>은 전쟁 기간동안 그려진 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그의 재능이 충분히 발휘된 작품으로 평가된다¹⁵⁾. 하프트만에 따르면 놀데 자신도 이 종교화를 자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57-61절을 표현한 작품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숨진 후에 아리마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리스도를 장사지내고자 그 주검을 받아와 무덤에 장사하기 전의 장면이다. <매장>에서의 색채는 매우 정신적이며 영적이다. 1912년의 종교화에서 많이 보여지던 넓은 색채의 배열은 이 작품에서 푸른색과 노란색의 단순한 대조로 축소되었고 그리스도를 노란색으로, 웅크리고 앉은 요셉의 얼굴은 가려진 채 그리스도를 부둥켜안고 우는 마리아는 푸른색으로 표현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푸른색으로 에워싸여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은빛이 도는 푸른색과 황금색이 주조를 이루어 초자연적인 찬란함을 느끼게도 한다.

하프트만은 이 작품의 후기 고딕적 특성은 독일 미술이 두 번째 위대한 시대를 창조하고자 하는 놀데의 명백한 작품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의 후기 고딕시대의 조각 <피에타>와 비교해 질 때 더욱 명백해진다¹⁶⁾.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를 조각한 <피에타> 상은 고통으로 뒤틀린 그리스도의 얼굴과 피에 젖은 상처를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지는 매우 쇠약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매장>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과 마른 육체의 표현은 이 후기 고딕 시대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

<매장>과 함께 전쟁기간 동안에 그려진 종교화로서 전쟁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은 동일한 해에 제작되었던 <최후의 심판>(1915)이다. 세상이 끝날 때에 나타날 <최후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에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놀데는 전쟁을 통해 많은 죽음에 직면하고 세상의 폐를 겪으며 이 주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최후의 심판>은 전쟁기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등을 종교적 주제 안에서 적절히 계승시킨 것으로 평

가될 수 있다. 1915년 이후 놀데의 주요 종교화들은 1921년에 제작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19년에 놀데는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자신의 고향 슐레스비히가 분할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유년기의 환상과 고향에 깊이 뿌리 내려진 정신적 유대가 끊기게 된 사실에 놀데는 심하게 좌절하였고 이 분노는 그를 호르(Fohr) 섬 부근의 복해에 있는 할링 후제(Halling Hooge) 섬에 은둔하게 하였다. 이 섬에서 놀데는 수채화로 악마와 같은 기괴한 모습들을 다루었는데, 한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불안해보이기도 한다. 이 때 제작된 수채화를 후에 유화로 옮긴 대표적 작품이 <악마와 학자>(1919)이다. 포아(Pois)는 이 시기의 작품이 비록 밝고 환상적인 색채로 그려졌으나 우울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보이며 이는 전쟁의 결과에 의한 놀데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1919년의 놀데에게 미친 전쟁의 상처와 이후 1921년의 종교화에서도 또한 전쟁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는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포아의 이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1921년에 놀데는 1912년에 제작한 <이집트의 마리아> 3부작에 이어 두 번째 3부작인 <순교>(1921)를 제작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놀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포함하여 순교의 3가지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순교>의 그리스도는 매우 축소되고 빈약한 모습이며 죽어가는 그리스도보다도 주위의 네 명의 인물이 더욱 크게 그려져 있다. 네 명의 위치도 그리스도가 뺀친 두 팔 끝에 각각 한 인물씩을 배치했으며 다리를 중심으로 전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인물을 표현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대담하고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이 네 인물 모두 작고 괴로워하는 그리스도 위로 솟아 있으며 그리스도 형상으로부터 이 작품의 유일한 빛이 나오고 있는데 조롱하는 자들의 교체되는 검은색과 화려한 색채들은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부드러우나 완고한 온기가 있는 색채와 대조되고 있다. 놀데는 이 작품 이후 3-4년에 걸쳐 한 번씩 종교화들을 그렸으나, 나치에 의한 작업금지령 이후 약 17년간 제작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나치 정권하에서 그의 표현주의적 그림과 종교적 주제가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놀데가 1909년에서 1912년의 종교화에서는 영적 갈망의 표출로서 자유로운 색채와 붓놀림으로 그의 표현주의적 세계를 구축해 간 데 반해 1915년 이후의 종교화들은 색채와 형태의 자율성에서 중요성을 찾기보다는 상세적 색채와 단순한 형

태들을 통해 정신적인 면이 많이 표현되었다. 또한, 후기에 제작된 주요 종교화들에 등장한 “죽음”의 테마는 전쟁의 비참함과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상실한 놀데의 상처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915년 이후에 종교화들은 놀데가 처음 영적 갈망 속에서 제작에 입한 1909년에서 1912년까지의 종교화들만큼 집중적으로 제작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놀데의 내적 세계를 지탱, 예술 세계의 발전, 그리고 이 시기에 일어난 두 차례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의 조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독일의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당시 이러한 사상을 주제로 인간의 내면세계와 정신성을 중요시한 표현주의의 화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화가인 에밀 놀데의 종교화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대표되는 놀데는 동시대의 표현주의 화가들이 종교적 주제를 불안한 시대적 상황의 반영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20세기에 순수한 신앙심을 종교화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즉, 놀데는 20세기 초의 혼란한 시대에 북부 독일의 기독교 전통 속에서 형성된 성장기의 경험적 신앙과 그리고 니체의 영향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종교화와는 구별되는 현대적 감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교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핵심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놀데의 종교화 특성을 시기별 상황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현주의적 경향이 구축되기 이전의 초기시기에 제작된 작품에서는 종교화를 집중적으로 제작하던 시기(1909-1912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적인 느낌이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성장기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 성격으로부터 받은 작품의 영감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본격적인 종교화의 제작은 1909년에 심한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경험을 계기로 얻어진 영적, 종교적 표현에 대한 강한 욕구에 의해 1912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의 종교화들은 놀데의 깊은 신앙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며 자발적인 붓질과 색채를 통해 그의 표현주의적 특징을 확고히 하였고, 또한,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관능적인 표현도 종교화

에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종교화를 이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1915년 이후에 제작된 종교화는 영적 감동의 표현의 전성기보다는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내재된 깊은 신앙심이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표현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색채와 형태의 자율성에 중요성을 갖기보다는 상징적 색채와 단순함을 통하여 정신성이 많이 함축된 표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시기의 종교화들에 등장한 죽음의 테마는 제1차 대전의 비참함과 전쟁의 결과로 고향을 상실한 놀데의 좌절과 상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시기별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북부 독일의 성장기의 성경을 통한 프로테스탄트 경험적 신앙이 놀데에게 종교적 영감을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종교화와 달리 변화된 20세기에 전통적으로 동일한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독자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새로운 감성의 현대 종교화를 이룩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즉, 인위적인 기독교 사상의 체득이 아닌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상상으로서의 신앙적 영감이 당시의 표현주의라는 화조와 다양한 사상·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독특한 종교화를 이룩해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이윤경(1994). 에밀 놀데(Emil Nolde)의 종교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p.1.
- 2) 신영란(1997). Emil Nolde론 : Emil Nolde의 종교적 주제의 회화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
- 3) 임소아(1995). 에밀 놀데(Emil Nolde)의 판화연구. 성신여대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p.1.
- 4) 안상진(2002). 19세기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 사상과 한국 선교-종교와 문화(제8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p.135-162.
- 5) Fritz Stern(1965). The Politics of Cultural Despair: A Study in the Rise of the Germanic Ideology. Garden City, New York : Double day&Co., pp.251-253.
- 6) 후스토 L. 곤잘레스(1988). 기독교 사상사III(현대편). 이형기, 차종순역. 서울: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p.455.
- 7) Jeung Young Mok(1990), Max Beckmann's Paintings on Biblical Themes, 1906-1918, Ph.D. Dissertation,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p.23-24.
- 8) 김희보(1992). 기독교 사상사 개설. 서울: 대한기독교

- 서회, pp.459.
- 9) 라이온사 편(1989). 교회사 핸드북. 서울: 생명의 말씀사, pp.54.
- 10) 토니레인(1986). 기독교 사상사.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 p.381.
- 11) Peter Selz(1963). Emil Nold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p.24.
- 12) 최지훈(2002). 독일표현주의 인물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2.
- 13) 박준택(1990). 니체 사상과 그 주변. 서울: 대왕사, p.193.
- 14) 정미희(1990). 독일 표현주의 미술. 서울: 일지사, p.76.
- 15) Pois Robert(1952). A Concise History of Modern Painting. New York: Yhames and Hudson, p.125.
- 16) 켈슨 H.W(1978). 미술의 역사. 김윤수 외 역. 서울: 삼성출판사, p.296.